2 자유연제 II

90% 광범위 중화상 환자의 치료경험 1예

하나병원 화상센터

김세연 · 최동휘 · 이주봉 · 정철수

(배경) 미국 화상학회 보고에 의하면 화상치료 환경의 발전으로 인해 체표면적의 90% 이상의 광범위 화상 환자의 경우 현재 50%이상의 생존율을 보인다. 우리나라의 경우 생존율에 있어서는 아직 50%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. 중화상 환자에 대한 본원에서의 화상 치료 경험으로서는 체표면적의 90% 대부분 전층 화상이었던 환자가 생존한 예를 경험한 바 있어 이에 우리나라의 광범위 중화상 환자의 생존율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보고하는 바이다. **(대상 및 방법)** 환자는 22세 남자로서 몸무게 76 Kg, 신장 186 cm이며 2007년 2월 27일 유사성 휘발유 취급 중에 화재 사고로 인해 수상하여 경상대학병원 거쳐 본원에 내원하였다. 내원당시 양측 족부, 좌측 흉부와 어깨 및 두피를 제외한 모든 부위에 체표면적의 90%에 해당하는 부위에 화상을 입었으며 화상의 깊이는 안면부, 경부에 부분층 화상이 있었고 체간부, 골반부, 둔부, 회음부, 양측 상, 하지에 전층 화상을 보였다. 흡입 손상 및 다른 외상은 없었다. **(결과)** 환자는 Warden공식에 따라 수액 치료를 받았으며 사지에 가피절개술을 시행하였다. 총 중환자실 체류기간은 87일 이었고 2회에 걸쳐 모든 가피를 절제하였고 동시에 사체 피부 이식을 하였으며 11회에 걸쳐 Cultured Epithelial Autograft (CEA)를 이용하여 자가 피부 이식을 시행하였다. 중화자실 집중치료 중 39일 동안 Continuos renal replacement therapy (CRRT)를 시행하였다. 치료 경과 중 발생한 합병증들은 급성 신부전, 폐부종 및 폐렴, 비결석성 담낭염 등이 있었고, 다종의 G(+)균과 G(−)균 및 혐기성 세균들과 진균의 창상 감염이 있었고 혈액 배양 검사 상 Pseudomonas aeruginosa와 MRSA가 동정되는 균혈증이 있었다. 우측 고관절에서 무혈관성 괴사에 의한 관절 변형과 우측 수부, 양측 고관절, 양측 슬관절, 양측 발목 관절이 화상 후 반흔 구축으로 인해 운동 제한이 있는 상태이나 지속적인 재활 치료 후 현재 직립 보행 및 일상생활이 가능하다. **(결론)** 우리나라 중화상 환자의 생존율은 치료 환경의 발전으로 많은 향상이 있었지만 아직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. 특히 체표면적의 90% 이상의 화상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. 또한 생존율의 향상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면에서도 좀 더 향상된 결과를 위해 애써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.